

낙농가의 4월의 번식관리는?



박성재
소번식경영아카데미 원장(농학박사)

1. 젖소를 친구로 만들자!

기온도 상승하면서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기지개쳐는 시기인지라 낙농가는 젖소의 몸의 털에 매달린 분을 제거하는 빗질을 하면서 젖소와 친해지는 친구가 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젖소는 우리가 얼마나 애정을 주느냐에 따라 젖소도 표현을 매우 잘하는 축종이라는 것을 아마 대부분의 축주는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젖소를 친구처럼 애인처럼 가족처럼 관리를 한 경우에 젖소가 축주에게 주는 이로운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소를 이동하고자 할 때 원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편하게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발정관찰이 쉽다는 것이다. 소가 경계심이 없어 머리를 지나치게 흔들지 않고 축주와 눈을 마주하면서 명호를 보여주므로 명호 관찰 기록

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셋째, 소가 경계심이 덜하여 인공수정시 소를 몰기가 편하며 수정작업이 편하다는 것이다. 넷째, 분만시나 분만 후 소가 축주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 후산관리와 초유 착유 등 번식의 중요한 시기에 많은 도움을 소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평소 실시하는 건강점검이나 BCS 기록시 소를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보너스를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고 소를 반려동물처럼 키울 수가 있다.

젖소는 다른 반려동물과 달리 축주의 금전적인 부분까지 챙겨주는 매우 유익한 반려동물이 될 수 있다. 항상 소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나누는 자세는 번식효율의 상승과 매일 매일 행복의 샘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늘 한결같은 사랑과 스킨십을 소에게 보여 주기 바란다.

간혹 농장에 가면 소들이 주인님을 반기지 않고 경계를 하면서 도망가는 경우가 발생하여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 임신감정 등 번식관리를 위한 작업에 많은 애로점이 발생하고 간혹 축주와 소 사이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축주의 소에 대한 관리기술과 능력, 성격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소에게는 꼭 사랑의 감정을 느끼도록 관리하는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일상의 발정관찰, 건강관찰 등을 소의 무리 속에서 부딪치면서 실시하고 스킨십을 자주 하면 경제적인 반려동물이면서 살아있는 로또 복권 같은 젓소가 된다는 것을 머리에 새기면서 행복한 젓소가 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4월은 기온상승과 일조량의 증가로 인하여 발정과 수태 및 분만이 많이 이루어지는 번식계절인데, 통계적으로 4~5월경에 발정이 제일 많고 수태율이 높은 시기이므로 번식에 유의하고 기록부에 번식 상황을 꼭 기록하여 내 농장의 번식효율을 높이시기 바란다.

2. 귀여운 송아지 관리

필자가 농가에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소홀하다 싶은 것은 송아지의 잠자리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농가가 많다는 것이다. 송아지는 사실 내 농장의 미래이고 내 생업의 주춧돌이란 사실을 잊고 사는 분이 많은 것 같다. 분만 시 초유급여(분만 후 4시간 이전), 재대 절단 소독(분만 즉시), 이표관리(생후 3일 전후), 제각(생후 10일 전후 연고 도포), 우유급여(이유까지 2~3개월), 입질사료, 건조 급여(생후 1개월 전후부터 별도 칸막이 아늑한 공간 마련), 송아지와 반려 감정 쌓기(우유급여 시 머리 쓰다듬기,

손가락 빠리기), 바닥건조(청결), 보온관리를 내 농장의 미래(송아지)를 위해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송아지를 어릴 때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커서 자기가 가진 유전력을 최대 40%까지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노력하는 60%에 의해 내 농장의 미래 청사진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농가에 가서 송아지 관리기술을 점검하면 큰 소의 우유 생산능력과 번식관리 수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송아지 관리가 잘되면 몇 년 후 어미소의 사고가 줄기 때문에 밀소(어미소와 교체할 육성우)의 수를 적게 사육해도 된다는 의미로 육성우가 늘면서 먹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선도농가에 가면 우리농가는 어미소 경제연령이 길어서 만삭우를 판매하여 부수적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도 듣지만 송아지 관리를 잘 못하여 밀소를 고가에 구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요즘같은 불경기에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농가에서 존폐의 위기가 올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청정우유, 고급우유, 건강우유 생산의 기본은 송아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각인 시켜드리고 싶다.

3. 봄맞이 대청소

봄맞이 대청소로 방역과 소의 건강을 챙기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사 특히 분만실의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개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해 주고, 분만실은 깨끗한 깔짚을 깔아주어

생산된 송아지와 분만한 어미소가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산유량 증대에만 초점을 맞춘 사양관리 보다는 적정 산유량과 번식에 초점을 맞춘 적절한 영양균형 관리가 더 중요하다.



특히 TMR 관리방법에서는 주기적으로 우군의 BCS를 점검하여 2.0 수준의 지나치게 낮은 개체는 강정사양이나 별도관리를 해야 하며 뿔이 있거나 무리 중에 상위서열을 유지하는 개체는 비만의 우려가 있으며 발정시 서열이 낮은 다른 개체가 승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청소시는 우군을 운동장으로 내몰고 해야 먼지에 의한 호흡기 발생을 줄일 수 있고 축사 천정의 지나친 거미줄은 먼지와 더불어 머금은 습기로 인해 누전의 원인과 화재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좋은 계절에 봄맞이 청소를 권하고 싶다. 3월보다는 4월의 기온이 소에게는 더 좋은 시기라고 생각된다. 사료 대금이 수시로 상승하는 어려운 시기에 낙농가 여러분의 세심한 노력이 농장 경영의 수지개선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4. 소의 보약 공급

소의 보약은 조사료인 것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소의 보약을 제대로 급여 못하는 농가는 많다는 사

실이다. 과량인지 소량인지 저질인지 양질인지를 고려해서 급여해야 하는데, 무심하게 급여해서 소의 건강관리, 우유생산량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다. 간혹 지나치게 싼 조사료를 구입하여 소의 영양공급 밸런스를 망가지게 해서 우유생산, 번식관리에 장애를 주기도 한다.

조사료의 영양을 변동시나 필요시 각 지역 센터나 사료분석 가능 기관에 의뢰, 분석해서 젖소의 우유생산 영양과 번식관련 영양의 부족이 없도록 배합비를 관리해야 한다.

이제는 근성적인 낙농은 수지를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만큼 사육비가 증가했으며 증가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작년의 이상기후로 인해 농후사료나 조사료의 수급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낙농의 수지타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영양의 부족으로 인해 우유생산량의 감소나 번식장애 발생을 점검해야 하며 영양의 과잉으로 인해 과도한 영양의 허비가 발생하거나 번식장애(배란지연, 낭종 등)의 발생이 우려

되므로 항상 영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항상 대비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5. 번식기관 활력 관리

소의 자궁에서는 무기물을 난소에서는 비타민이 제대로 공급되어야 순환하는 혈액과 함께 난포의 발생과 배란, 태아의 착상, 임신, 분만에 생리적 반응과 주기가 정상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매우 상식적인 정설이다.

하지만 농가에서는 무기물의 공급에 무기물 블록을 그릇에 담거나 매달아 주어야 하지만 수평인 사료조의 바닥에 주므로 인해 소가 혀로 핥으면 먼 곳으로 밀려가서 먹고 싶은 블록을 구경만 하는 경우(위의 사진)가 있는 데, 약간의 관심으로 이러한 현상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된

다. 꼭 금년 봄에는 착유소의 공태가 단축되도록 비타민과 무기물의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비타민 또한 정량을 공급하여 난소 내 건강한 난포의 발육이나 배란, 수정 등의 번식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는 요령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겨울 내내 활동량(운동)의 감소로 위축된 체내 활력을 비타민과 무기물로 번식기관 활력을 관리하시길 바란다. 특히 분만 후 비타민과 무기물의 정상적인 공급은 번식효율 유지와 체내 무기물의 손실을 보충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특별한 공급관리가 필요하다. 선도 농가에서는 반드시 분만 후 전환기에 에너지 관리와 함께 무기물, 비타민 공급관리를 매우 잘한다는 것이 본받아야 할 요령이다. ☺

